



제목	Zoroastrische Studien
발행언어	독일어
발행처	Hansebooks
발행일	2016. 5. 25.
저자	F. H. H. Windischmann(편집자)
출판국가	독일
페이지수	324
ISBN 또는 ISSN	978-3741148828

내용 요약

빈디쉬만(F. H. H. Windischmann)과 슈피겔(G. Spiegel)이 편집한 『조로아스터교 연구: 고대이란의 전설과 신화에 관한 논문』은 초판 원본이 1863년에 출판된 역사가 매우 깊은 논집이다. 독일 문학 작품 출판을 주로 하는 한자북스(Hansebooks)에서 고대 이란 관련 역사와 역사적인 유적, 기독교 신앙, 고고학, 그리고 고대의 유물 등을 아우르는 연구 결과물을 논집으로 출판했는데, 그것은 결코 흔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 책은 2007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디지털화 되었다. 역사적으로 소중하고 소장과 보존의 가치가 높은 책을 원본과 동일한 포맷으로 재생산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광학 문자 인식(Optimal Character Recognition)을 기반으로 재생산한 책은 인쇄 상태가 깨끗하기 때문에 선호도와 가독성이 높을 수 있다. 하지만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는 최적화되지 않은 서브-옵티멀(sub-optimal) 방식을 택했는데, 그 이유는 비록 인쇄 상태가 나쁘고 이상하게 생긴 활자가 그대로 있고 포맷이 뒤죽박죽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원본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은 문화적인 의미를 갖는다.

종이에 인쇄된 활자의 수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것이 보증하는 지식의 유효기간도 한정적이다. 조로아스터의 출현이 오래 전의 일이고 조로아스터교의 역사가 긴 만큼 그것의 생명력을 유지 및 보존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정보와 지식을 보호하고 전달 및 전승하기 위해서 종이 매체를 전자 매체로 바꾸는 작업은 불가피한데, 이런 맥락에서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는 일종의 절충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